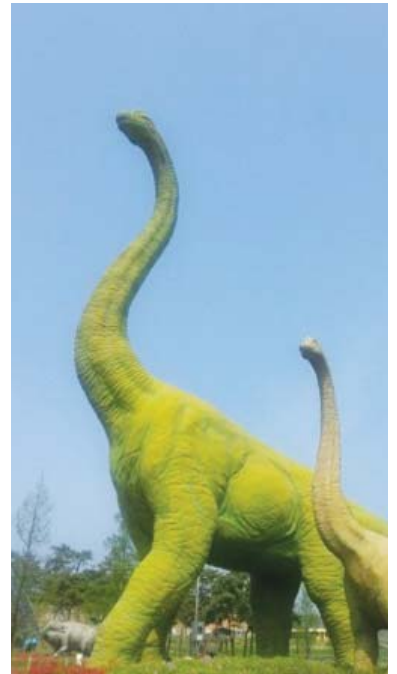


화석부터 모형까지... 아이들과 함께 상상의 나라를 펼쳐라

쥐라기시대를 상징하는 건 단연 공룡이라 할 수 있다. 공룡,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끊임 없는 상상력을 높인다. 아이들이 책에서만 보았던 공룡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공룡테마공원이 익산시 왕궁면에 소재해 있다. 익산 IC인근 왕궁면에 위치한 공룡테마공원은 익산의 상징인 보석박물관, 화석전시관과 함께 하나의 관광테마를 이루고 있다. 특히 화석전시관 건립당시 함께 조성된 공룡테마공원은 공룡의 실제 모양을 본 떠 만든 다양한 공룡모형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공룡 모형, 화석전시관 둘러보기

공룡테마공원을 보기 전 먼저 바로 옆에 위치한 화석전시관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여러 테마로 이루어진 화석전시관은 삼엽충이 살던 고생대와 포유류가 출현한 신생대의 화석들을 비롯해 실물 크기의 공룡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화석전시관은 지질시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시대별 각종 화석과 익룡, 수장룡 실물 크기의 골격 공룡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거대한 공룡 모형이 실물 크기로 자리하고 있는 화석전시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보석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화석전시관을 놓치면 안 된다. 화석전시관은 공룡 화석이 전시된 내부는 물론이고 전시관 밖 공원에 티라노사우루스 등 다양한 종류의 공룡 모형이 큼지막하게 서 있어 아이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다.

▲공룡테마공원에서 상상의 나라를 펼쳐라

화석전시관에서 예행연습이 끝났다면 야외공원에서 더 실감나는 공룡들의 모습들을 감상할 수 있다. 화석전시관을 나와 왼편 공룡테마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티라노사우루스가 거대한 이빨을 드러내며 방문객을 맞이한다. 처음 본 아이들이 덜컥 겁을 벌만한 거대한 몸집과 무시무시한 위용을 뽐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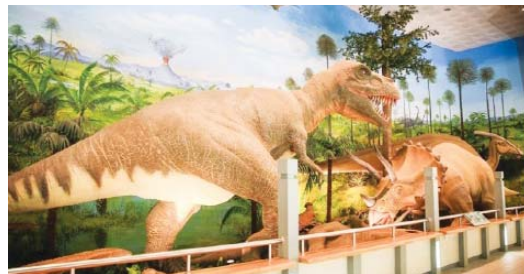
삼갈 듯한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을 지나면 영화 쥐라기 월드에서 보았던 다양한 공룡들이 실제크기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앞발이 뒷발보다 길어서 '팔 난 도마뱀'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마치 아들과 함께 넓은 초원을 거닐 듯 우아한 자세를 뽐내고 있다.

또한 오른쪽을 돌면 '이빨 없는 날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포테라노돈의 익룡이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고 '작한 어미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진 마이아사우라는 자신의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아이들을 지켜내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일명 '박치기 공룡'으로 알려진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서로 지지 않으려 있는 힘껏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어 더욱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진다.

공룡들은 각자의 특징과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더 현실감 있는 쥐라기시대로의 여행에서 상상나라를 펼 수 있게 된다. 마침 공룡테마공원에 놀러온 한 아이가 물끄러미 둘러 엄마로 알려진 브라키오사우루스 공룡을 보고 "책에서 보던 공룡을 눈앞에서 직접 보니 신기하다"며 공룡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넓은 규모의 공룡테마공원은 아이들의 순수한 꿈을 지켜나가는 학습활동의 장이 되기 충분하다. 이번 주말 아이들과 함께 공룡테마공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익산=장영원 기자



화석전시관, 신생대 화석까지 전시... 지질시대 역사 '한눈에'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부터 우아한 브라키오사우루스까지 야외공원에서 실제 크기로 만들어진 공룡 가득... '시선 집중'

2019 정음 방문의 해 2019~20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왕조의 뿌리를 지켜낸 정음의 정신이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전쟁의 불길 속에 유일하게 남겨진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 이를 지키기 위해 식솔과 노비, 우마차를 동원한 정음의 선비 안의와 손홍록, 희목대사 그리고 수 많은 정음사람들...

내장산 깊은 곳에서 370여일 간 목숨 걸고 지켜낸 것은 500년 조선왕조의 뿌리였습니다.

정음의 정신이었습니다.

